

인물 서사 조망… 운동 이후 조용한 삶 초점

민주화운동 원로 김상윤씨 시민문화에세이집 폐내

‘50년 동안 흔들리며 배운 세상…소박한 운동사’
만남과 갈등 등 24편 수록…광주 깊은 맥락 짚어
“광주 잘 모르는 분들에 새 지도 한 장 주는 일”

광주 민주화운동의 원로이자 시민운동을 주도 했던 김상윤씨가 1975년 유신독재 시대 민청학련 혐의로 수감 중이던 광주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지 50년을 맞는 해를 맞아 시민문화에세이집 ‘50년 동안 흔들리며 배운 세상-나의 소박한 운동사’(작가와 친)를 최근 폐냈다.

제목에서 흔들리며 배운다는 데서 얼핏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 떠오른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구절처럼 저자 또한 부조리한 시대 심연이 통째로 심하게 흔들리는 시간들을 살아내야 했으니 제목에서 흔들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소소한 일상으로 축발된 흔들림이 아니었을 터다.

엄혹한 시대 상황에서 민주회를 외치고, 투쟁을 실천하며 바라본 세상이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근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데서 그 흔들림은 세상의 본질을 깨닫는 일이기도 했을 듯 싶다. 물론 50년 동안 흔들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진동은 계속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고 형식으로 기술된 이 시민문화에세이집은 생사를 넘나드는 두 번의 투옥을 불러온 민청학

련과 5·18민중항쟁 등 굵직한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 시민과 함께 지역과 더불어, 조용히 이어온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문화사업, 사회적기업 실험, 윤상원 역사 기념관, ‘광주마당’ 설립, 민주주의전당 유치 활동,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미디어아트 사업 등을 조망한다.

이런 행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각기 다른 사업과 흔들리며 배운 세상

제목에서 흔들리며 배운 세상…소박한 운동사

제목에서 흔들리며 배운 세상…소박